

CHAPTER **05**

Build-up

1 2-layer Build-up

1) Build-up 순서(2-layer)

- (1) Deep dentin(cervical)
- (2) Dentin(normal/incisal)
- (3) Enamel layer
- ※ How to cut-back

2) Build-up mapping(2-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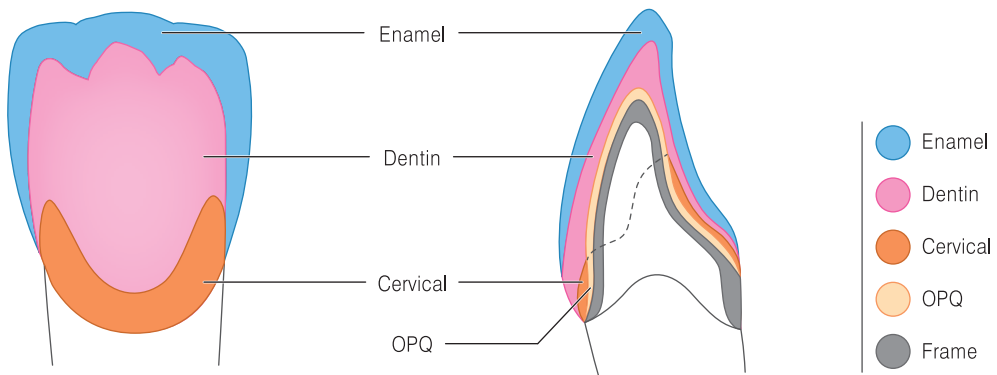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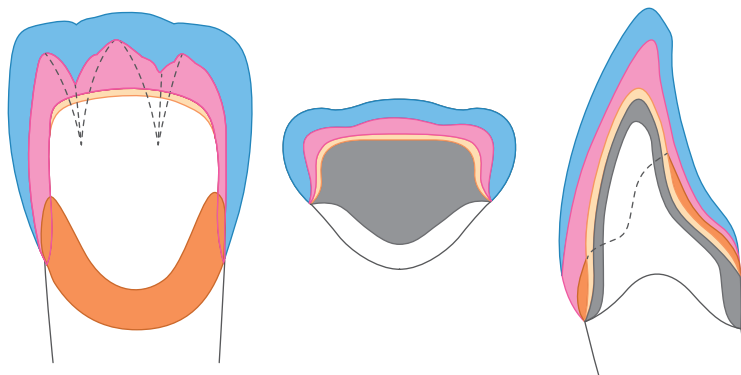


그림 5-1 Build-up mapping(2-layer)



3) Live build-up(2-layer)
 (1) Deep dentin(cervical)



그림 5-2 ZR의 경우 effect liner 얇게 도포



그림 5-3 Cervical ceramic(순면) 치아의 1/3까지 = 코핑의 1/2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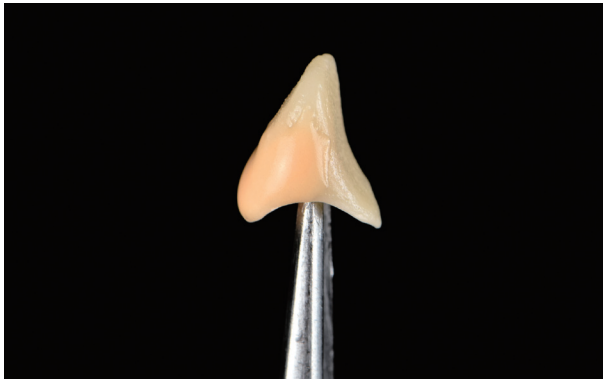


그림 5-4 Cervical ceramic(순측원심면)



그림 5-5 Cervical ceramic(설측원심면)



그림 5-6 Cervical ceramic(설면)



그림 5-7 Cervical ceramic(근심면)



(2) 설측 putty를 활용한 lobe build-up(dentin full contour)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lobe(엽)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빌드업을 하게 되면 치아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표현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치아의 외형에서 순면은 근심순측엽, 중앙순측엽, 원심순측엽 그리고 설면은 설측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3개의 순측엽에서 중앙순측엽이 발달하면 치아의 형태는 원형이 되고, 근심·중앙·원심순측엽 3개 모두 골고루 발달하면 치아는 사각형이 된다. 양쪽의 근심·원심순측엽이 발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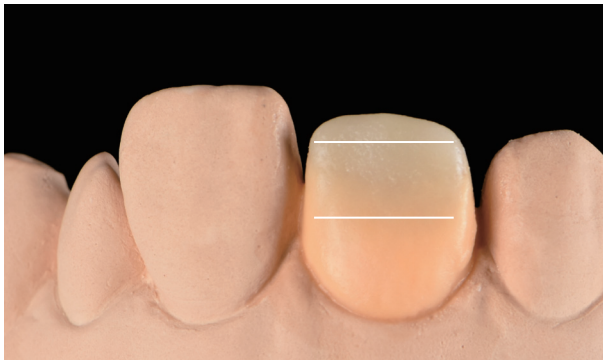


그림 5-8 Cervical ceramic(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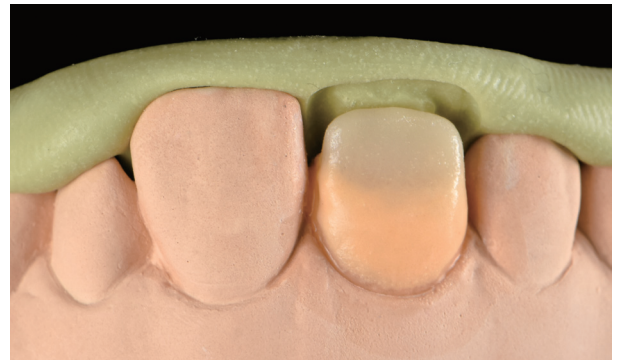


그림 5-9 Cervical ceramic(퍼티에 분리제 얇게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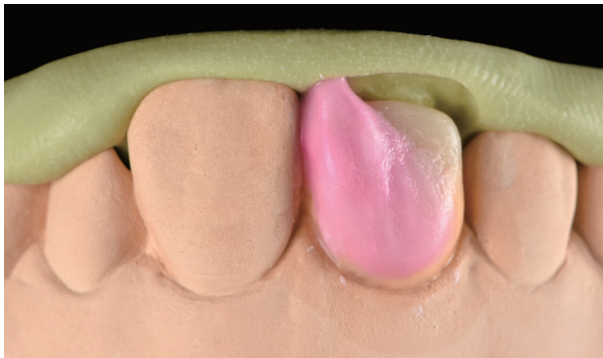


그림 5-10 Dentin lobe 빌드업(치경부 + 근심순측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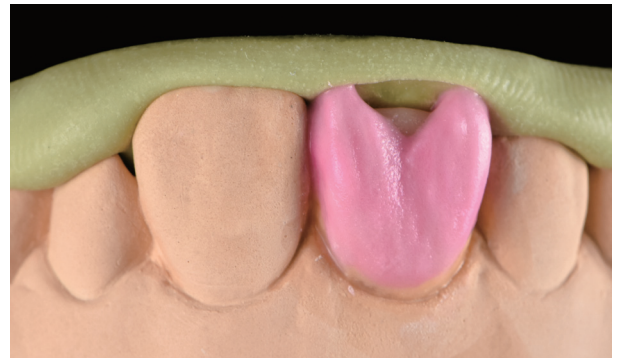


그림 5-11 Dentin lobe 빌드업(원심순측엽)



그림 5-12 Dentin lobe 빌드업(중앙순측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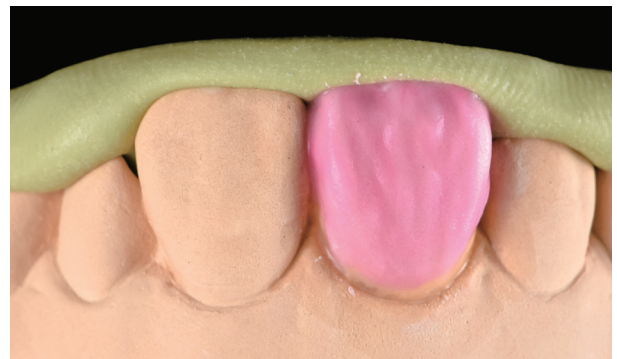


그림 5-13 Dentin(골짜기 메꾸기)

면 치아는 첨형이 된다. 이 3개의 엽(lobe)이 만나면서 절단부에는 절단결절이 생기고 다양한 절단연이 나타나며 근심순면구와 원심순면구가 나타난다.

치아 형태를 분석함에 있어 순면의 3개의 엽을 나눌 때 치경부를 추가로 한 덩어리로 나누면 치경풍용부를 맞추기도 수월해지고, 치경 1/3 부위의 'S'자 곡선의 오목한 부위와 치경 근·원심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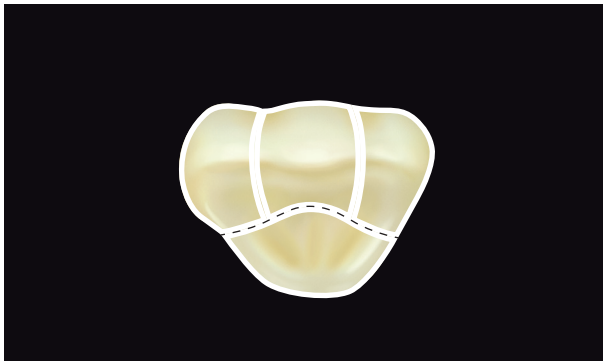


그림 5-14 치아의 lobe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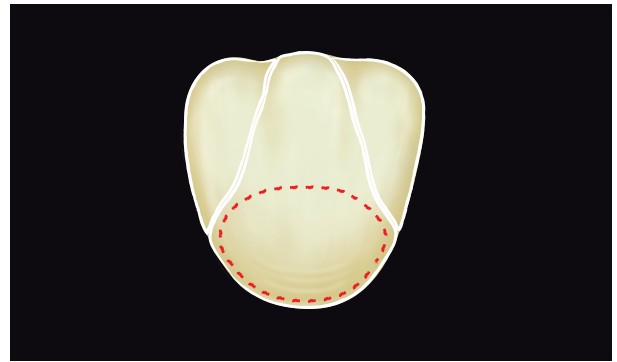


그림 5-15 Lobe의 치경부 추가 분할



그림 5-16 Dentin full contour 퍼티로 절단부 확인



그림 5-17 Dentin으로 full contour 완성 후에 티슈로 수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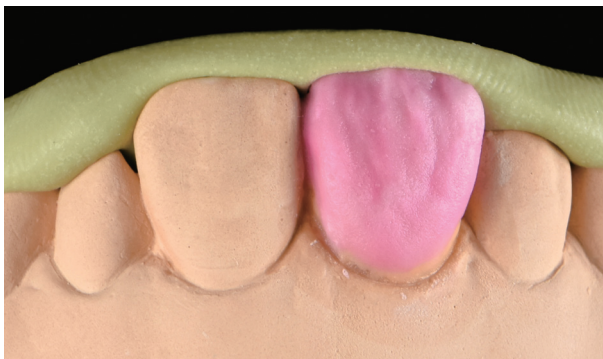


그림 5-18 Dentin full contour 확인



그림 5-19 양손으로 퍼티와 모델을 잡고 조금씩 진동을 주며 분리

(3) Putty에서 분리한 후 build-up 조정(dentin)



그림 5-20 Dentin full contour(순면)



그림 5-21 Dentin full contour(절단면)



그림 5-22 Dentin full contour(절단·순면)



그림 5-23 Dentin full contour(인접면)



그림 5-24 Dentin full contour(순면 추가)



그림 5-25 Dentin full contour(설면 추가)

(4) 5단계 cut-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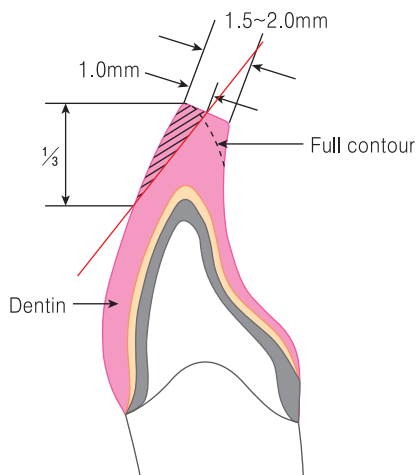


그림 5-26 Dentin cut-back 1단계(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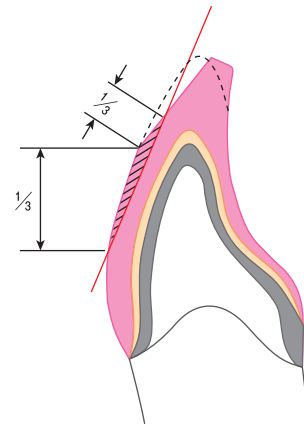


그림 5-27 Dentin cut-back 2단계(순면)



그림 5-28 Dentin cut-back 3단계(인접면 사선 컷백), 컨택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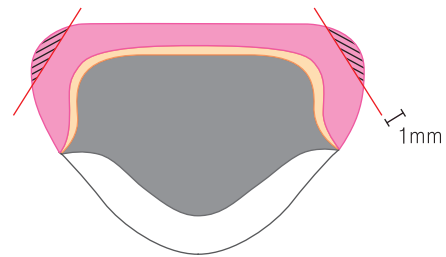


그림 5-29 Dentin cut-back(절단면)



그림 5-30 Dentin cut-back 4단계(순측 절단 1/3 마멜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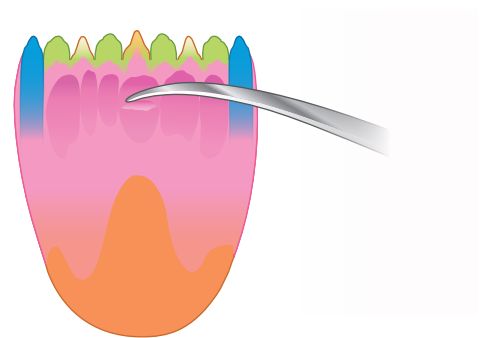


그림 5-31 Dentin cut-back 5단계(설측 절단 1/3) - 빛에 비추면서 두께 조절



(5) Labial cut-back

Labial cut-back을 할 때 순면에 오팍이 비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우선 원래 방법대로 3등분할선을 체크하되 순면 공간이 부족할 때는 절단 라인을 제외한 아래의 공간을 조절해가면서 절단 1/3 부위를 주의하면서 한다.

Labial cut-back을 하고 enamel build-up까지 한 다음에 lingual cut-back을 해야 얇은 절단부가 무너지지 않는다. Labial cut-back과 lingual cut-back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그림 5-32 Dentin cut-back 3등분(순면 공간 부족할 때)



그림 5-33 Dentin cut-back 3등분(순면 공간 여유로울 때)

Labial cut-back에서는 3등분할선과 각도가 중요한 만큼, 3등분할선을 체크했다면 절단면부터 컷백을 시작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좋다.

단, 파우더가 많이 건조된 상태라면 원치 않는 부분에서 쪼개질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의 수분은 있는 편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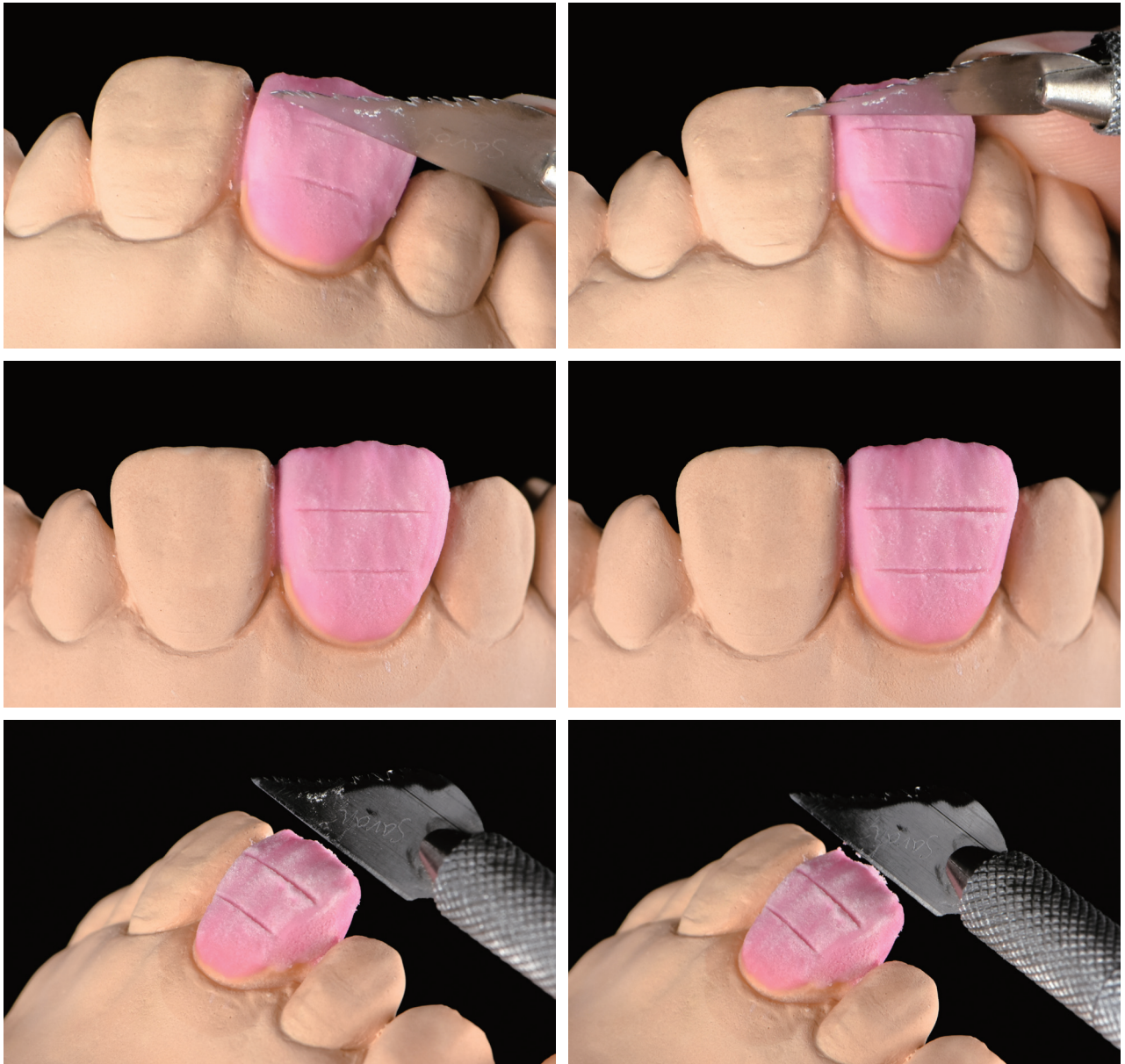


그림 5-34 Dentin cut-back 순면 3등분하는 법

(6) Proximal cut-back

Cut-back의 1단계인 labial cut-back을 하고 나서 근·원심 cut-back을 할 때는 컨택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컷백나이프를 사선으로 위치시킨다.

Proximal cut-back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컨택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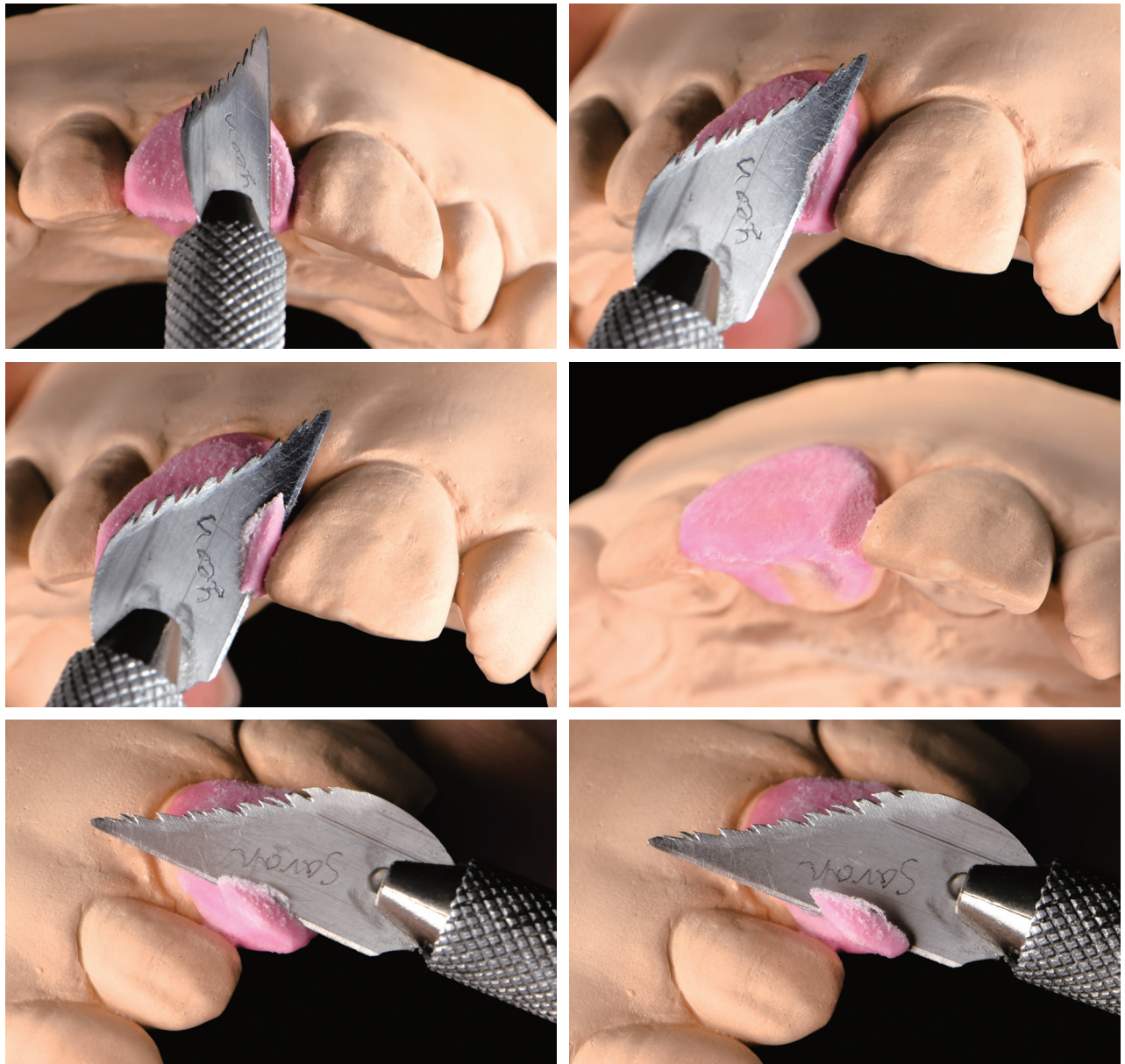


그림 5-35 Proximal cut-back